

시론

청년농을 위한 스마트농업은

한국 농업·농촌은 ▲전체 산업 중 농업 비중 축소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 향상 둔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농림업의 비중은 1980년 16%에서 2019년 1.8%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같은 기간 농가인구는 1080만 명에서 224만명으로 줄었다. 2019년 기준 농가경영주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62%, 40세 미만의 비율은 0.7%다. 65세 이상 농가경영주 100명당 40세 미만은 1명에 불과한 셈이다.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에 들어 오지 않는다면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농가수의 급격한 감소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농업·농촌의 미래는 청년농의 유입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농업의 활로로 꼽히는 스마트농업에 필수적인 첨단설비와 데이터 기반 농업의 접근성 또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한 청년농에게 훨씬 용이할 것이다.

정부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농업대학과 졸업자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다. 스마트팜 신규 시설 및 기존 시설물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30억원까지 비재무평가로 총 사업비의 90%(총 사업비 10억원 이하는 100%)까지 저리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이처럼 파격적인 정책은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담보로 스마트팜 창업을 권장함으로써 농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청년이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사업에 지원했으며, 농업대학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극소수만 혜택 정부·관련기관, 현실적 해결책

졸업생들에게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대한 희망을 심어줬다.

그러나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 혜택을 받는 청년은 극히 일부다. 이 자금은 농업·농업진흥지역농업보육기금(농신보)에서 사업비의 90%를 신용보증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 시설 준공 후에는 농신보의 보증 비율이 사업비의 50%로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40%의 담보제공 능력이 있는 청년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신의 토지에 유리온실을 시공할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

기 신청을 통해 담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에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은 땅을 사는 데 경제적 한계가 있다. 어렵게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유리온실 같은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지 않는 이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종합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청년농에게 시설비가 많이 드는 유리온실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라스틱온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온실을 이용한 스마트팜 창업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스마트팜 시설 준공 이후 사업비의 40%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필요하지만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 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해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다는 법제도의 해석 때문이다. 내구성 10년 이상의 장기성 필름은 어디에서도 생산하지 않는다.

이제는 현실적인 청년농 육성정책을 위해 스마트팜 진입장벽을 허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농업·농신보·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등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종원 한국농수산대학 교수 원예환경시스템학과

전문가의 눈

반복되는 기상이변 ... 예보기술 개발을

언제부터인가 기상이변(이상기상)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다. 올해만 해도 유난히 따뜻했던 지난겨울로 인해 매미나방이 창궐하면서 전국의 산림을 파괴하고 있으며, 충북 충주와 제천을 중심으로 시작된 과수 화상병이 사과나무와 배나무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후는 30년을 기준으로 이상 여부를 따진다. 이상기상은 대체로 30년에 한번 발생할 정도의 확률로 일어나는 셈이다. 그런데 2016년과 2019년은 지난 30년 중 제일 더운 것도 아닌, 현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그리고 두번째로 더운 해였다고 한다. 올해는 그 기록을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니 기상이변이 와도 너무 자주 오고 있다.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다양한 기상 인자를 포함할 때 우리나라는 매년 10회 정도의 기상이변이 발생하며 발생빈도도 해마다 급

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이변은 엘니뇨와 라니냐처럼 3~4년마다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수면의 온도와 해류의 변화에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숲의 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기상이변은 농작물과 임산물의 스트레스와 병해충 취약성을 높여 생산량과 품질을 저하시킨다. 더불어 아열대성 해충과 산불·산사태로 인한 임산물 피해 증가, 가축 전염병 및 폐사 증가, 유제품 생산량 감소 및 수자원 관리에 대한 취약성 증가로 우리 국민의 식량안보가 위협당하고 있다. 또한 이상기상은 야외 노동이 많은 농업인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상기상의 발생을 막거나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이상기상이 반

드시 재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의 발생과 그 규모는 이상기상의 빈도와 강도뿐 아니라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취약성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도 필요하지만, 기상이변의 모든 요인을 종합한 정확도 높은 장기적인 예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영농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개별 농가의 상황에 맞춰 경보를 내리고, 대처방안을 제안하는 농가 맞춤형 기상위험 조기 경보시스템의 전국적인 확대도 절실하다. 돌 이상의 기상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재해에 대한 고려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각 지역의 기상이변 대응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농업인 구조 특성에 맞도록 지역의 기후 경쟁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현석 서울대 교수 국가농림기상센터장

사설

농협, 잠곡사업 확대 ... 자금기반 높이는 계기 되길

농협이 잠곡사업 확대에 발 벗고 나서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팔·잠깨·올무·수수·기장 등의 '기타잡곡'은 쌀·보리·밀·콩 등에 비해 정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왔다. 실제 이들 기타잡곡은 외국산에 밀려 자급률이 2016년 13.4%, 2017년 10.5%, 2018년 9.6%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다. 이러한 때 농협에서 이들 잡곡을 적극 육성하기로 해 의미가 깊다.

농협은 최근 '농협 잠곡사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하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은 잠곡 주산지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해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부터 가격 등락폭이 크고 민간 유통업체의 투기가 심한 참깨·기장·수수·조·올무 등 5개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5개 품목은 국내에서 연간 1만3000t 정도 생산되는데 농협에서 16.2%에 달하는 2100t을 취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참깨·수수·기장·조·올무·귀리·녹두·들깨·찰흑미·찰벼 10개 품목의 계약물량을 2021년 3500t에서 2025년에는 1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소득에 기여하는 효과가 2020년 90억원에서 2025년에는 44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잡곡은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가격 변동폭이 커 생산 규모화가 힘든 실정이다. 또 보따리장수 등에 의한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산지에서 농가 조직화가 쉽지 않았다. 국내 잠곡산업이 붕괴 직전에 이를 정도로 쪼그라드는 이유다. 이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던 차에 농협이 잠곡사업 확대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다행히 최근 잡곡이 다이어트 등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소비가 늘고 있다. 귀리가 슈퍼푸드로 소개돼 2018년에는 연간 국내 보리 소비량의 40%에 달하는 4만 6000t이 수입됐다. 이는 바깥 말하면 국내 잠곡시장의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잠곡사업 확대는 농협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힘을 실어줄 때 더욱 효과적이며 사업 진척도 빠를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농협이 민간 차원에서 농가 조직화와 판로 개척에 나설 때 정부는 품종개발 등을 통해 잡곡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잠곡 소비기반을 넓히기 위한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도 필요하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농협과 정부가 사업 파트너로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잠곡산업을 새로운 틈새 산업으로 육성하기 바란다.

전문 단지 육성해 계약재배 확대 정부도 품종개발 등 적극 지원

우울한 플럼코트의 현주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플럼코트'가 애플단지로 전락했다는 소식이 다. 농가소득을 견인할 새 소득작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플럼코트가 소비부진 등으로 천덕꾸러기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자두의 달콤함과 살구의 향기를 동시에 맛볼 수 있도록 육중한 플럼코트는 미국에서 첫선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국내 여건에 맞게 품종연구를 시작해 <하모니> <티파니> <심포니> <사이니> 등 4개 품종을 개발했다. 두가지 과일맛을 지닌 감정을 무기로 농진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차세대 과일 소비를 이끌 과종"이라며 적극적인 보급에 나서 해마다 재배면적이 크게 늘었다. 2007년 10ha로 시작해 2012년 20ha, 2014년 70ha, 2018년 133ha로 늘어난 재배면적은 올해 150ha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광받던 플럼코트가 애플단지 취급을 받게 된 건 재배가 까다로운 데다 유통기간이 짧고, 판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수분수도 문제다. 플럼코트는 꽃가루가 없어 반드시 수분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농진청이 수분수로 추천한 품종 가운데 일부가 플럼코트보다 늦게 꽃이 피거나 수분수 기능이 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재

배기술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품종을 성급하게 보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많은 농가가 플럼코트를 수확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날 것만 판단에 수확을 포기하거나 폐원하고 있다. 이에 농가들은 "플럼코트의 가장 큰 문제는 과육이 쉽게 물러 유통과정에서 많은 수가 버려지는 데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성숙하기·당도·출하량 등 플럼코트에 관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해 재배·유통 기술을 확립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플럼코트를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함께 가공공장 지원 등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매망 구축과 함께 홍보활동 강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플럼코트 사업은 처음부터 실패를 잉태하고 있었지도 모른다. 기술 확립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마케팅이나 시장 분석 등 철저한 사전 준비 없이 뛰어든 결과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주의와 속도 등에 매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것이 플럼코트가 남긴 반면교사의 교훈이다.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브이맨비뇨기과 최중근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히알론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

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시술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발명 특허” 의료기기

남성(性) 희소식

“물건이네! 물건이야~”

▶ 성기내 혈액유입장애로 인해

- 잠자리에 자신없는 분
- 자연스러운 부부생활이 어려우신 분
- 부부생활을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분
- 음경이 예전같지 않으신 분

40대부터 70, 80대의 분들도
간편히 사용가능하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이텍이 원하는 목적을 멋지고 당당하게 달성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조이텍 특징 -

- ☑ 휴대간편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1분 이내 작동 간편하게 사용가능

15주년 할인 이벤트!
전화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1588-4025

브이맨비뇨기과 02)3469-1900 www.vmanclinic.com
강남역1번출구 바로옆

대한의사협회 의료공공성명 제 13009-중-38478호

시원로 2012-GN1-14-0098